
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31일(목) 총 2매				
담당 부서	건설심사과	담 당 자	• 건설관리팀장 윤평상 ☎ 440-3741 • 담당자 남양환 ☎ 440-3743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 인천시, 지역 건설업 활성화 위해 대형건설사와 간담회

- 인천관내 주요 86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계획 청취 -
- 인천업체 수주확대, 지역자재·인력·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 논의 -

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.

이날 간담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교통환경조정관 등 관계 공무원과 인천 관내에서 건설 공사 총액 상위 10대 건설사\* 임원 및 건설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.

\* 참석(10개 사): 현대, 포스코, 대우, 한화, SK, DL이앤씨, 대방, 쌍용, 호반, 두산

인천시는 건설사로부터 인천관내 주요 86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계획을 청취한 후, 지역업체의 원·하도급 수주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. 특히, 하도급비율 70% 이상을 목표로 인천업체의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, 지역자재·인력·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.

더불어 건설현장의 참여 근로자, 시설물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

철저를 당부했다.

이에 대해, 건설사 임원들도 “인천업체의 참여가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, 관련협회의 추천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“인천지역 건설공사액의 약 75%를 타 지역 건설사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으로, 이를 개선하고자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관련협회와 현장방문 합동 세일즈 실시, 대형건설사와 함께 「협력 업체 만남의 날」 행사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